

##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이후 한·러 협력과제

**이재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lly@kiep.go.kr, Tel: 3460-1089)

**제성훈**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shjeh@kiep.go.kr, Tel: 3460-1255)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강부균**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bgkang@kiep.go.kr, Tel: 3460-1242)

## 차 례 ●●●

1. 러시아의 아태전략과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2. 러시아의 대(對) APEC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과제
3. APEC 정상회의 이후 한·러 협력방안

## 주요 내용 ●●●

-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및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역내 국가들과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APEC 국가들과의 다자협력 범위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단일경제공간으로 확대하는 자국 주도 범유라시아 차원의 APEC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
  - 러시아는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농업 생산력 제고로 원료·에너지 부문에 이어 농업을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으로 육성하여 아태지역의 신흥 농업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함.
  - 또한 극동지역을 유럽과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 및 철도 인프라 현대화, 북극항로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석유·가스를 아태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운송망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과도한 에너지자원 편중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APEC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 러시아가 설정하고 있는 대(對) APEC 협력과제 및 한·러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복합적인 대러 협력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
  - 러시아는 WTO 가입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FTA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므로,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한·러 FTA 체결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극동지역의 농업 인프라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바, 합작 영농기업 및 공동농업기술연구소 설립을 대러 농업부문 진출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철도·항만·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기적 전망에서 러시아 교통·물류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및 극동지역을 아태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계획을 고려할 때 양국간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연구협력 강화, 극동·시베리아협력센터 설립, 인프라 공동기금 조성 등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 참여를 다각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1. 러시아의 아태전략과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 가. 러시아 아태전략의 변화

■ 소련 해체 직후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의 문제들로 인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함.

- 1990년대 초까지 러시아는 아태지역 전체의 경제적 역동성과 통합 흐름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국 · 중국 · 일본 등 일부 국가들과의 양자 무역 · 투자협력에만 제한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음.
  - 소련 해체 직후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은 소련 시절(8~10%)보다 약간 증가한 12~13%였지만, 아태지역의 역내 전체 교역에서는 1% 미만에 불과했음.<sup>1)</sup>
  -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중국과는 중소분쟁 이후 20년간 지속된 갈등관계를 청산함.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된 초점은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에 있었음.
- 1990년대 중반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 지역 안보 및 안정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의 참여, 자국 경제의 국제화 촉진, 지역통합 및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참여, 유럽에 대한 자국 경제의 의존도 감소 등을 위해 APEC 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함.<sup>2)</sup>
- 러시아는 1998년 APEC에 가입했으나 경제위기와 정치불안 등 국내 문제와 NATO의 동유럽 확장 및 유고 내전 개입,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시도 등 안보위협으로 인해 아태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200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러시아는 자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함.

- 2000년 11월 푸틴 대통령은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 직전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참여는 자연스럽고 또한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선언함.<sup>3)</sup>
  - 또한 극동지방의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와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증대, 이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운송의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함.
- 이후 러시아는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극동 및 시베리아의 천연자원 개발 및 수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한 아태지역-유럽 간 물류운송 활성화, 동북아 방면 가스관 건설 등 대규모 공동프

1) 이재영 · 이재유(1998. 10),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pp. 14~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이재영 · 이재유(1998. 11), 「러시아의 APEC 정책 분석과 전망」, 『KIEP 세계경제』, pp. 50~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Путин В. В.(2000. 11. 14), “Россия: новые вост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로젝트를 역내 국가들에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 극동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해왔음.
  - 러시아 정부는 경제 우선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Transbaikal) 지역 경제사회발전 연방 특별 프로그램’, ‘2025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Baikal)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에 관한 정책결정과 개발을 전담하는 극동개발부를 연방정부 부처로 신설하면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12년 7월 9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아태지역 통합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부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극동개발의 연계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 러시아는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에 기초하여 유럽과 아태지역에 걸친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계획임.
  - 푸틴 대통령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단일시장 건설”을 주창하면서, CIS 경제통합(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 등)을 중심축으로 삼고, 서쪽으로 EU, 동쪽으로 한·중·일 및 ASEAN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 정부는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APEC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APEC 21개국은 인구 27억 명을 포괄하면서 세계 GDP의 약 53%, 세계 교역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APEC과 유로존(Eurozone)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각각 4.1%, 1.4%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각각 4.3%, -0.3%로 전망됨.<sup>4)</sup>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이 지역에 총 6,793억 루블(미화 약 213억 달러)을 투자하여 교통 및 도시환경 인프라, 발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 현대화함(표 1 참고).<sup>5)</sup>

4) APEC Secretariat, *APEC at a Glance*(2012); APEC Policy Support Unit, *APEC Economic Trends Analysis*(2012. 5. 3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2. 4).

5) “Россия выделила на саммит АТЭС 679 млрд рублей,” *Известия*. (2012. 7. 4)

표 1. APEC 정상회의 관련 주요 인프라 투자 내역

(단위: 백만 루블)

주요 인프라	투자액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14,300
크네비치 공항~사나토르나야 역 구간 도로	11,100
사나토르나야 역~졸로토이 록 만(cove) 대교 구간 도로	2,300
졸로토이 록 만 대교	20,100
졸로토이 록 만 대교~파트로클 만 구간 도로	3,200
파트로클 만~노브이 구간 도로	30,500
보스포르 보스토츠노이 해협 대교	35,400
극동연방대학	67,400
컨퍼런스 센터	9,400
호텔	23,800
오페라·발레극장	2,500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248,500
키린스코예 가스전 개발	36,000
우스리스크 화력발전소	22,600
베링기술콤플렉스 가스관	20,000

자료: www.kommersant.ru.

-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정·재계 엘리트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인 '발다이 클럽'은 최근 모스크바를 정치·군사·외교수도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문화·사법수도로 특화시키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확장하여 '제3의 수도(경제수도)'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아 큰 반향을 얻음(그림 1 참고).

그림 1.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신 블라디보스토크



- 러시아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국의 아태지역 중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향후 한·러 협력강화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임.
- 한국은 아태지역과는 물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여 중앙아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해양-대륙 복합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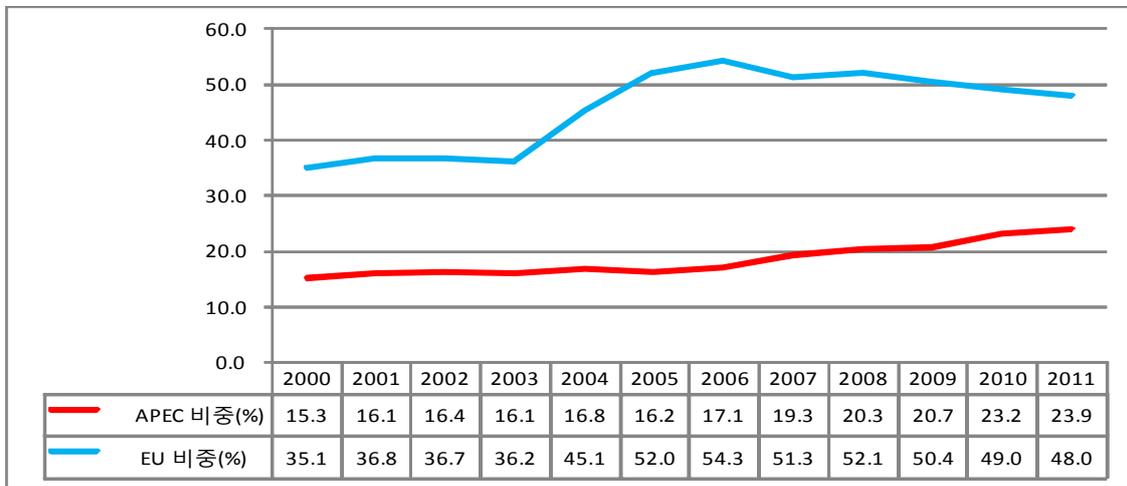
-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번 APEC 정상회의 4대 의제(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통합 진전,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강화)를 중심으로 극동·시베리아 진출을 통한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창출하고, 대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러시아의 대(對) APEC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과제

### 가. 경제협력 현황

- 러시아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EU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대 APEC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16%대에 머물렀던 APEC의 비중이 2011년에는 23.9%(수출 18%, 수입 33.9%)로 대폭 증가함(그림 2 참고).

그림 2.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APEC과 EU의 비중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관세청.

- 최근 교역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상호 교역액은 전년대비 약 35% 증가한 1,965억 달러를 기록함(표 2 참고).
- ※ 2000~11년 러시아의 대 APEC 교역액은 약 8.4배 증가했는데, 특히 한국(17.7배) 및 중국(12.5배)과의 교역이 급증함.

표 2. 러시아의 대APEC, 대EU 교역액

(단위: 십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교역액	137.0	141.9	152.3	191.0	257.2	340.2	439.1	551.7	734.7	469.0	625.7	821.4
대APEC 교역액	21.0	22.9	25.0	30.7	43.2	55.2	74.9	106.7	149.5	97.1	145.5	196.5
수출	15.5	15.1	16.2	19.3	26.9	29.9	35.6	43.0	60.3	45.3	67.3	93.0
수입	5.5	7.8	8.8	11.3	16.3	25.3	39.3	63.7	89.2	51.8	78.1	103.5
대EU 교역액	48.0	52.2	55.8	69.2	116.0	177.0	238.5	283.1	382.4	236.3	306.4	394.0
수출	36.9	36.7	37.6	47.0	83.5	133.3	176.9	195.9	265.9	160.9	210.8	266.5
수입	11.1	15.4	18.3	22.2	32.5	43.7	61.5	87.2	116.5	75.4	95.6	127.5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관세청.

- 러시아와 APEC 국가들 간 투자협력은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러시아의 대APEC 직접투자는 62억 5,800만 달러, APEC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123억 7,200만 달러였음.
  - 2012년 8월 22일 러시아가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향후 투자 관련 법·제도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 상호 투자협력 확대에 호의적인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나. 주요 협력과제

- 러시아는 APEC 국가들과의 다자협력 범위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단일경제공간으로 확대하는 자국 주도 범유라시아 차원의 APEC 통합을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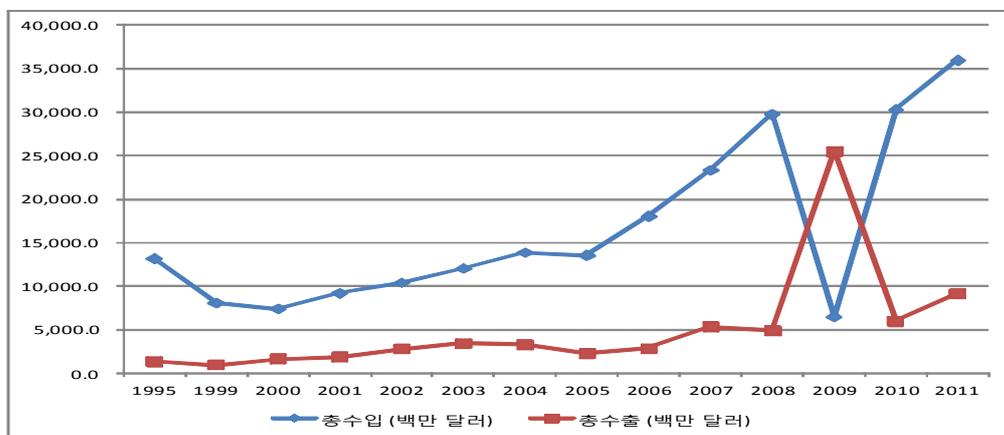
※ 관세동맹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3국 단일경제공간은 2010년 기준 인구 1억 6,750만 명, GDP 1조 6,775억 달러 규모이며,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0%와 석유 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음.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은 다자무역체제 강화, 보호무역주의 자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방안 모색, 규제 수렴을 통한 무역장벽 해결, 역내 투자환경 개선 등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음.
- 러시아는 뉴질랜드, ASEAN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APEC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함.
  - 러시아는 그동안 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에 집중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ASEAN과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단일경제공간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할 계획임.
- 그동안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러시아는 향후 아태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을 범유라시아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지난 9월 6일 푸틴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sup>6)</sup>에서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 창설이 이미 유라시아 공간에서 공동시장 형성으로 이미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통합조직들이 EU와 아태지역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최근 러시아는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농업 생산력 제고로 농산물 수입국 지위에서 벗어나 아태지역의 신흥 농업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함.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한 농업 생산성 증대, 농산물 무역체제의 개방성·안정성·예측가능성·투명성 증대,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에 관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음.
- 소련 해체 이후 계속된 농업투자 감소, 생산성 하락, 기후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곡물생산 등으로 2008년 이후 주요 곡물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러시아는 수입급증 현상을 겪고 있으며, WTO 가입 이후 수입의존도 심화를 우려하고 있음(그림 3 참고).

그림 3. 러시아 농산물 수출입 추이(1995~2011년)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관세청.

- 이에 러시아는 2010년 '식량안보 독트린' 채택에 이어 2012년 '유라시아 식량안보 연구소' 설립 및 '2013~20년 농업부문 국가지원 프로그램' 채택 등 농업부문 강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 또한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농업기술 및 투자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sup>7)</sup>
  - 러시아는 원료·에너지 부문에 이어 장기적으로 농업을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에 육성하여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시장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sup>8)</sup>

■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유럽과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공급루트 확보, 지능형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가시성 촉진을 위한 기술 강화, 재난리스크 관리전략 개발 등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합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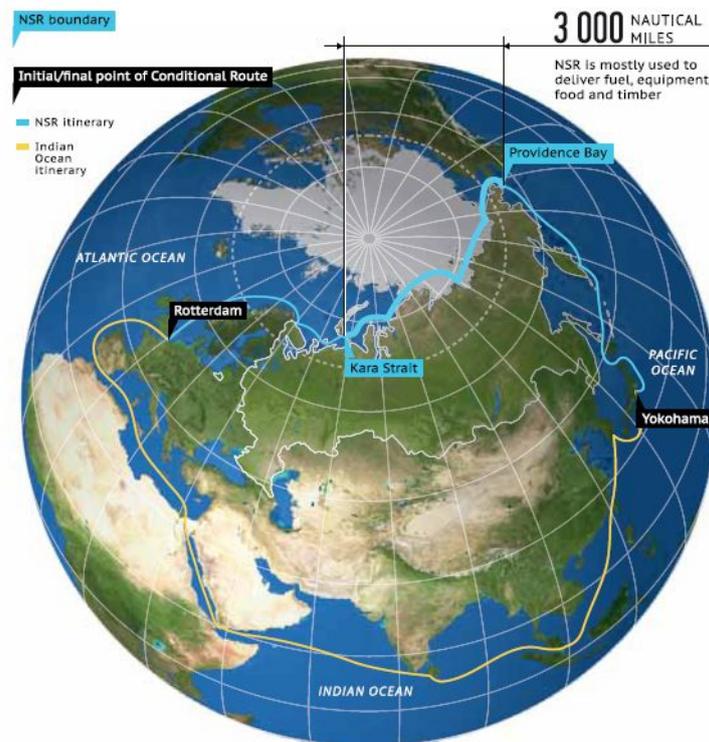
6) Putin, Vladimir(2012. 9. 6), "An Asia-Pacific Growth Agenda," *The Wall Street Journal*.

7) "Russia offers to lease land in the Far East to APEC countries," *Russia & India Report*. (2012. 1. 30)

8) USDA(2012. 2. 14), Agricultural Service, *Agricultural Minister Report to Duma on Agriculture Situation in Russia*, p. 5.

- 러시아는 전 세계 물동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 물류를 대거 유치하기 위해 TSR과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 ‘국가물류시스템 현대화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아시아-유럽 간 총 물류량의 20%를 TSR로 유치할 계획이며, 이 경우 러시아 내륙물류 수익만 연간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 이를 위해 TSR의 낙후된 인프라와 복잡한 통관절차 등을 개선하고, 중국·한국 등 동북아 국가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임.
  - 극동 내륙교통망과 연계된 ‘유라시아 물류 허브’ 도약을 목표로 극동지역의 항구와 교통 및 화물수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존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수에즈 항로 대비 운송거리가 최대 40% 단축되는 북극항로의 상용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그림 4 참고).

그림 4.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자료: Valdai Discussion Club(2012. 7), *Toward the Great Ocean, or the New Globalization of Russia*.

- 또한 환적체계 효율성 향상, 화물 추적시스템 및 통합교통망 구축, 전산화를 통해 교통·물류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러시아산 위성항법시스템 글로나스(GLONASS)를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 2011년 7월부터 주요 물류거점에 글로나스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으며, 현재 이 시스템 적용을 통한 통합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관련 법률 및 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 전자태그 칩에 컨테이너 정보를 기록하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존 문서처리 시스템에 비해 운송시간이 4-6배 단축됨.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위원들의 연구보고서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2020년까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여 아시아-유럽으로 운송되는 물동량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는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태지역에 자국의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망을 구축하고자 함.

- ‘에너지전략 2030’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수출비중을 2008년 기준 각각 6%, 0%에서 2030년까지 25%, 20%로 확대할 계획임.
  -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건설 및 동부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 방면 에너지 운송망을 구축하는 한편,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모색하고 있음.
    - ※ 동부가스프로그램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전을 통합가스수송망(UGSS)에 연결해 중국·한국·몽골 등으로는 PNG 형태로 수출하고,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로는 LNG 형태로 수출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sup>10)</sup>

■ 과도한 에너지자원 편중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현대화를 추구하는 러시아는 APEC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R&D 투자확대 및 혁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이번 APEC 정상회의 합의문인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에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지원, 첨단투자 지원, 교육협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촉진 등 다양한 혁신적 성장촉진 방안들이 명시돼 있음.
- 러시아는 아태 국가들과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 플랫폼’을 창설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에너지 효율·원자력·우주항공·의료기술·IT 분야 등에서 기술 및 인력 교류를 강화하고자 함.
  - 특히 APEC 컨퍼런스 센터에 ‘APEC 기술 플랫폼’ 및 아태고등교육공동공간을 조성하여 역내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 ※ 정상회의 이후에는, 23억 달러를 투입하여 건설한 APEC 컨퍼런스 센터를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및 민·관·학 3자 협력이 실현되는 과학연구단지로 활용하여 APEC 역내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sup>11)</sup>
- 지난 9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경제성장속도 유지를 위해 인적 자원의 혁신 및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태지역 대학 네트워크 건설, 학술·인적(교사 및 학생) 교류 활성화, 나아가 아태지역 차원의 단일교육공간 건설을 제안한 바 있음.
- 이 외에도 극동지역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하여 역내 국가간 우주탐사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9) “С 1 июля 2011 г. устанавлива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ГЛОНАСС обяжут всех,” www.glonassnn.ru(검색일: 2012. 9. 9).

10) “Восточная газовая программа,” www.gazprom.ru(검색일: 2012. 9. 9).

11) “Russky Island Getting Push on Schedule,” *The Moscow Times*. (2012. 5. 30)

### 3. APEC 정상회의 이후 한·러 협력방안

- 러시아는 WTO 가입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 국가들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본격화할 것인바,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한·러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난 9월 8일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무역 및 투자 확대, 인적교류 증대를 위한 시증면제협정 체결, 양국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sup>12)</sup> 체결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2007~08년 한·러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B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입장차로 인해 협상을 중단한 바 있음. 이번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러 FTA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 FTA를 통해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수산물 쿼터 확보, 에너지자원 협력 등 안정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FTA 추진 시 러시아 주도로 형성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단일경제공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가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극동지역의 농업 인프라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인바, 이는 한국의 대러 농업부문 진출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국 해외농업개발 면적의 약 60%가 러시아 영토에 해당하며, 러시아 진출 영농기업의 90%가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그동안 한국 영농기업들은 주로 연해주를 중심으로 진출했으나 2009년 셀트리온 그룹이 러시아 서남부 로스토프 주에 농장을 설립하는 등 점차 진출지역이 다양화되고 있음.
  -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두 클러스터'와 '바이오테크 단지' 건설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여 한·러 합작영농기업 및 한·러 공동농업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아무르주 주도로 북한과 농업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3자 협력의 일환으로 남·북·러 합작농장 및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노동력 활용을 보장하는 남·북·러 정부간 공동협정 체결이 필요함.
  
- 러시아가 아태지역 교통·물류망 및 에너지 운송망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 분야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12)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외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협정임.

-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철도·항만·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기적 전망에서 러시아 교통·물류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 2011년 7월 인천공항공사가 하바롭스크공항 지분 10%를 인수하여 외국 항공사로서 최초로 러시아 공항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GCTS(Global Cargo Tracking System)를 통해 TSR 운송 컨테이너 추적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등 이미 이 분야 진출이 시작됨.
  - TKR-TSR 연결의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는 나진-핫산 구간 철도 운영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철도 분야 협력강화 및 한국형 고속철 진출을 위한 한·러 철도협력회의 신설을 제안함(표 3 참고).
    - ※ 러시아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 고속철도 건설에 이어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까지 최고속도 시속 300~400km의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표 3. 러시아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

구간	거리(km)	최고속도(km/h)	소요시간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660	300~400	2:30
모스크바~니즈니노보고로드	406	300~400	1:40
니즈니노보고로드~카잔	345	300~400	1:30
카잔~사마라	450	300~400	2:00
카잔~예카테린부르크	800	300~400	3:10
예카테린부르크~옴스크	830	300~400	3:20
옴스크~노보시비르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	1,280	300~400	5:10
크라스노야르스크~이르쿠츠크	1,000	300~400	4:00
모스크바~스몰렌스크~크라스노예(유럽)	463	300~400	2:00
모스크바~스젠크(키예프)	480	300~400	2:05

자료: 러시아 철도공사, 나희승(2012. 8. 13), 「러시아 고속철도 건설과 유라시아 통합」, *Russia-CIS Focus*, 제176호에서 재인용.

- 물류비 절감은 물론 북극지역 자원개발 및 수송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의 북극항로 상용화 계획 검토 및 참여가 긴요함.
  - 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 연계하는 물류 경쟁력 확보와 북극해 자원 확보를 위한 한·러 북극해 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로테르담 간 운항거리는 수에즈 항로 대비 32%(22,000km → 15,000km), 운항일수는 10일(40일 → 30일) 단축됨.
  - 지난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중에 한·그린란드 간 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4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 러시아가 제안하는 북극항로는 그린란드를 비롯한 북극해의 자원개발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는 루트가 될 것임.
- 러시아는 경제현대화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극동지역을 아태지역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인바, 한·러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연구협력 강화가 요구됨.

- 러시아는 경제현대화 촉진을 위한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투자 및 혁신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정보통신·금융 부문 사유화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APEC 컨퍼런스 센터에 설립될 예정인 'APEC 기술 플랫폼' 등 과학연구단지에 유관 연구소의 분소를 설립하여 한·러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연구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IT·의료기술·바이오 등 혁신부문 특화연구소를 현지에 설립하여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우수기술과 보유기관 정보를 한국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에 한·러 극동·시베리아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활성화 창구로 활용하고, 한·러 인프라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극동지역 개발 참여를 다각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기 푸틴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극동개발부를 연방정부 부처로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러시아에 양국 정부 차원의 공동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와 공동으로 '극동지역 한·러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탐사·개발 이외에도 농수산업·임업·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인프라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중국과 러시아는 2012년 4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중·러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농업·임업·기계제조·물류·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KIEP**